

수백명 '리베이트 명단'에 광주 의료계 발각

리뷰 2017 그 사건

<1> 의약계 리베이트 파문

올해 초 불거진 광주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은 관련 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리베이트 수첩'은 지역 의료인을 비롯해 고위 경찰간부, 공무원, 언론인 등 수백명의 명단을 담고 있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전남지역 경찰서장, 병원장, 세무공무원, 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하지만 수첩에 300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던 데 비해 실제 구속·입건된 사람은 10여명에 불과해 '용두사미' 수사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사건은 지난 1월8일 광주 한 아파트에서 A병원장이 목숨을 끊으며 세간에 알려졌다. 이 병원장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말 광주지역 모 약품 도매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수첩에 이름이 올라 있어

경찰간부·공무원 등 300명...뿌리 깊은 의약비리 재조명 경찰 6명만 입건...제식구 감싸기에 용두사미 수사 '도마'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유족은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압박했다. 이에 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못하지 않게 경찰 조직을 술렁이게 한 리베이트 수사는 지난해 8월 경찰에 접수된 진정서에서 시작됐다. "광주 모 약품 도매업체 대표 B(47)씨가 광주의 한 병원 관계자에게 15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줬다"는 익명 제보였다.

제보를 접수한 경찰의 수사 초기 단계는 의혹투성이었다. 4개월간 내사를 진행한 광주지방경찰청 한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리베이트가 의심되나 차용증서, 계좌 입금, 이자지급, 자금사용 내용이 투명한 만큼 내사 종결하고 추가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던 경

찰 간부는 수사관을 교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 문제의 수첩을 입수한다.

경찰이 내사 종결 대신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내부 갈등설이 단초가 됐다. 모 의약품업체 대표와 광주청 소속 총경 C씨가 친구 사이인데, C씨가 인사 평점을 둘러싸고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와 큰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의 약품업체 압수수색 전 정기 인사에 의해 전남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리베이트 수첩에는 C씨, 경정급 수사팀 관계자, 경위급 경찰관 등 경찰 5명의 이름도 있었다.

하지만 광주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결과 해당 경찰관 5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지만 이들은 의약품업체 대표에게 돈을 빌렸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결국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도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로 광주·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종사자, 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 6명만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약품 납품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C총경은 경찰의 수사는 피했지만 검찰 수사까지는 빠져나가지 못했다. 지난 3월 광주지검 특수부는 C총경이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발부박아 같은 달 23일 체포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C총경이 검찰에 체포되자 '경찰 수사 부실'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C총경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용희기자 kimyh@

목포대 의과대 설립, 국립 보건의료대 변수 되나

서남대 의대 정원 전남 배정 목소리...정부, 전북 배정 검토

보건복지부가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폐교를 앞둔 서남대 의대정원을 전남에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정원을 향후 설립될 국립보건의료대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대가 문을 닫은 뒤 의대 정원 49명을 2019학년도 입시에서 한시적으로 전남 지역 대학 의과대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 조절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한다.

문제는 지역 간·대학 간 입학자가 현격해 2019학년도 이후에도 이 정원을 계속 전북 지역에 묶어둘지에 대해 적잖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서남대가 속한 전북의 전북대·원광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이 계속 전북에 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인근 대학이 서남대 의대 재학생의 편입을 받으면서 정원도 함께 늘리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남지역에서는 이 정원을 전남 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과 세종뿐이다.

목포대의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에 목포

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의대 정원 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전남에는 섬이 1000

여 개에 달하는데 이런 곳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현황과 필요 인력 등을 점검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서남대 의대 정원을 어디에 배정할지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정원이 신설 대학으로 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공공의료대는 복지부 속원이지만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이 맞물려 계속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의료대 설립에 걸리는 3~5년 가량만 전북에 정원을 주고, 이후엔 정원을 공공의료대에 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이 날을 기다렸어요"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이 얼음을 치며 휴일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광주시 야외 스케이트·썰매장은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한다. /김진수 기자 jeans@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5, 해질 17:23, 달출 07:10, 달짐 17:35

밤 사이 기온 '뚝'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기온 떨어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2/8	보성	구름많음	-6/7
목포	구름많음	0/8	순천	구름많음	-4/8
여수	구름많음	-1/8	영광	구름많음	-3/7
나주	구름많음	-4/8	진도	구름많음	0/8
완도	구름많음	0/9	전주	구름많음	-2/7
구례	구름많음	-5/6	군산	구름많음	-3/8
강진	구름많음	-4/9	남원	구름많음	-5/6
해남	구름많음	-3/8	축산도	구름많음	3/9
장성	구름많음	-4/6			

◇ 바다 날씨

목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면바다	서~북서 1.0~2.5	서~북서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서~북서	1.0~2.0
면바다(서)	서~북서	1.5~2.5	서~북서	1.0~2.0

◇ 생활지수

니출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목적	간조	만조
	01:50	07:44
여수	14:36	09:53
	09:21	02:40
	21:13	15:24

◇ 주간 날씨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	☀	☀	☀	☁	☀	☀
0/3	-4/5	-2/7	0/7	-3/8	-1/8	0/8

광주교육청 가방 뒤통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12개 학교 오늘부터 시범사업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용 가방안전 뒤통을 제작,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가방 안전 뒤통 2000개와 차량용 교통안전 홍보 스티커 2만개를 제작했다.

가방 안전뒤통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30km'가 표시된 형상색 방수 뒤통으로 가방에 씌워 사용할 수 있다.

1학년 학생들이 등·하교시 착용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토크업이다. /이종형기자 golee@



경찰 공무방해 70%는 음주자

전남경찰 연말연시 집중단속

올해의 경우 지난 3년간에 비해 폭력 사건은 감소한 데 비해 주취 범죄 비율은 약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14년 408명, 2015년 346명, 2016년 404명, 2017년 11월말 기준 336명 등 모두 1494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989명(66.1%)이 술을 마시고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주취폭력(주폭)·공무집행 방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금남새마을금고와 든든한 미래를 위한 약속

회원의 소중한 꿈이 담긴 자산! MG금남새마을금고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정기예탁금

1년 최고 **2.4%**

정기적금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

2017년 한 해 동안 금남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지향하며 고객 여러분의 꿈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